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 22-23)

에기노 바이너트 작

[제1독서] 즈카르야 예언서 12,10-11; 13,1

[화답송] 시편 63(62), 2ㄱ-ㄷ, 2ㄹ과 3-4, 5-6, 8-9
(◎ 2ㄷ 참조)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낮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제2독서] 갈라티아서 3,26-2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루카 9,18-24

[성가 안내]

- 입당성가: [39] 하나되게 하소서
-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155] 우리 주 예수 [156] 한 말씀만 하소서
- 파견성가: [203] 오 거룩한 마음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군중이 스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옛 예언자 중에 한분’으로 군중이 이야기한다고 주님께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루카 9,20)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22절) 루카 복음은 이어서 주님께서 두 번째 (9,43-45), 세 번째 (18,31-34)로 당신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내용을 잇달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9,23)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주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1코린 1,23-24)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선 신앙인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과 기쁨으로만 채워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활이 고통과 슬픔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매일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When Jesus was praying in solitude, and the disciples were with him, he asked them, “Who do the crowds say that I am?” They said, “John the Baptist; others, Elijah; still others, ‘One of the ancient prophets has arisen.’” Then he said to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Peter said in reply, “The Messiah of God.” Jesus directed them not to tell this to anyone.

Then, Jesus predicted his Passion for the first time: “The Son of Man must suffer greatly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and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he Gospel of Luke continues with Jesus’ second and third predictions of Passion. Then, he said to all,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There is no compromise in following Jesus. One must give up one’s life to follow him. The Lord teaches us his way that is contrary to the way of the mundane world: “For whoever wishe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save it.” Paul the Apostle said, “We proclaim Christ crucified,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olishness to Gentiles, but to those who are called, Jews and Greeks alike,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We are the faithful, who have decided to follow the way of Lord’s cross. We may wish the way to be full of glory and joy. Furthermore, we wish our daily lives to be full of blessings with no pain or sorrow. However, we all know we have all the joys, pains, and sorrows in our daily lives.

The life of the faithful is the life of Lord’s cross. Our Lord invites us to his life and tells us we must take up our cross daily and follow him. We must fill our mind up with the love for God, take up our cross, and follow our Lord.

6월 소공동체 모임 소식

지난 6월 11일(토)에 열린 소공동체 모임에서 신자들은 복음 말씀(루카 7,36-8,3)을 되새기고 서로의 묵상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센터빌 구역 1반

이수호 미카엘, 이문희 미카엘라 가정에서 26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 말씀 나누기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묵상하였습니다. 공동체 설립 30주년 음악회 등 본당 행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즐거운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센터빌 구역 2반

김기봉 마르티노, 김애선 필로메나가 가정에서 18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묵주 기도로 시작하여 복음 말씀 중 '여인의 뉘우침'과 '다윗의 회개'에 대해 서로의 묵상을 나누고 '통회'에 대한 묵상 시간도 가졌습니다. 페루 뿌갈파 선교를 위해 \$200를 봉헌하기로 하는 등 기타 공지사항을 나누었습니다.



● 버크 구역 3반

유지광 배난시오, 유보나 가정에서 14명이 모였습니다. 죄지은 여인이 깊은 회개와 사랑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내용과 다윗이 통회의 기도와 눈물 속에서 하느님의 용서를 받은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 센터빌 구역 3반

박동성 미카엘, 김영실 마리아 가정에서 19명의 구역 식구들이 참석하여 묵주기도, 복음 말씀 나누기, 그리고 30주년 기념행사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홍알벗 알베르토, 김진아 안나 부부가 처음 참석하여 구역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가두 선교

레지오 마리아의 브레시디움 차원의 가두선교가 본격화되었다. 6월 8일(수)에는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단장 정우진 미카엘) 산하 '주님의 종 마리아' 브레시디움(단장 김희진 미카엘라) 단원 3명이 12시부터 2시까지 센터빌 H 마트에서 쇼핑객들을 상대로 가두 선교를 실시하였다.

6월 12일(일) 오후에는 은총의 모후 꾸리아(단장 이경구 그레고리오) 산하 '모든 성인의 모후' 브레시디움(단장 이인호 베드로) 단원 5명이 센터빌 롯데에서 선교했으며,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 산하 '증거자의 모후' 브레시디움(단장 이계성 안드레아) 단원 5명은 센터빌 H 마트에서 선교했다. 이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가톨릭을 알리는 유인물을 쇼핑객들에게 전하며 가두선교에 힘을 쏟았다.



증거자의 모후



주님의 종 마리아



모든 성인의 모후



모든 성인의 모후



청년 로고스회 워싱턴 지역 친교 미니 운동회

메릴랜드, 버지니아, 조지타운 세 본당의 청년들은 지난 11일(토) 오후 1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메릴랜드 소재)에서 열린 운동회에 참가했다. 청년들은 각 본당의 지도 신부와 함께 6개 팀으로 나뉘어 피구와 장애물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은 운동회에서 한바탕 땀을 흘린 후 성당에 모여 미사를 봉헌하고 식사 및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ME 주말 참가 부부 환영식

ME 가족 50여 명은 지난 12일(일) 10시 미사 후 성당 뒷마당에서 ME의 새 가족이 된 네 쌍의 부부를 환영하는 모임을 가졌다.

“ME 주말”참가자 부부의 소감 발표 시간에서 한 형제는 “떠나는 날까지 망설였지만 ME 주말의 2박 3일은 진정 둘이 함께, 둘만의 관계를 진솔하게 돌아보면서 일치를 이룬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해 ME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참석자들은 ‘나의 주말 이야기’를 비롯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훈훈한 사랑의 모임을 갖고, ME 활성화를 위한 10월 피크닉을 논의했다.



요한회, 애난데일 노인 아파트 방문

50대 교우들의 모임인 요한회(회장 윤봉근 도미니꼬)는 지난 8일(수) 애난데일 시니어 아파트를 방문, 한인 노인들을 위로하고 묵주기도를 함께 봉헌했다. 10여 명의 회원들은 20여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빌었으며, 기도 후에는 화기애애한 다과의 시간을 가졌다. 요한회는 연중 행사의 하나로 애난데일 및 버크 노인아파트를 각 2회씩 총 4회 방문하는 등 신앙과 자원봉사가 어울어지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애난데일 노인아파트에는 총 거주자 300여 명 중 약 80%가 한인 노인들로 알려져 있다.



꾸르실료 친교실 테이블 세척

꾸르실료는 지난 12일(일) 10시 미사 후 사각 테이블 세척(2015년) 봉사에 이어 올해는 원탁 테이블을 세척했다. 40여 명의 꾸르실리스마들은 친교실 원탁 테이블을 1차 약품 세척, 2차 파워워시로 세척하고 깨끗해진 테이블을 보며 함께 기뻐했다. 봉사자들은 작업 후 준비한 바베큐를 먹으며 친교를 나누었다.

Senior Banquet

What happened in our CYO?



Last Saturday, CYO had their annual Senior Banquet as a way to say their goodbyes and congratulate the seniors for graduating. The students and officers came in early to help set up. They prepared a beautiful travel themed venue with many fun performances! It was a very memorable and emotional event that left an imprint in our hearts, and we wish much luck for the seniors as they start college in the fall!



2016 CYO Graduates:

Bona Im, David Jung, Alex Kim, Emelyn Kim, John Kim, Patrick Kim, Dasom Lee, Brandon Lim, Vickie Park, Christina Shim, Christine Yoo, Sarah Yoon, and Emma You.

Announcements

- 1 CYO BBQ**
 - June 19th at Cafeteria
- 2 CCD Outdoor Mass & Picnic**
 - When: June 19th
 - Where: Frying Pan Farm Park
- 3 CCD Summer Camp Registration Begins on June 26!**
 - Who: Rising 4th - Rising 8th graders
 - When: Aug.12 (Fri) - Aug.14 (Sun)
 - Where: Pine Creek Retreat Center
1794 Back Creek Road,
Gore, VA 22637
 - Registration Fee: \$100/per participant
 - Registration process:
Sundays (June 26, July 10, July 17 & July 24), 9:30am - 11:30am at
CCD office
Limited spaces.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 4 Jr. High Workcamp Orientation**
 - Who: Adult crew leaders, high school helpers, participants and their parents
 - When: Sunday, June 26, 10:30am-11:30am
 - Where: Hasang Building, Room #103

Congratulations to our Altar Server Graduates!

The Altar servers of the most blessed Sacrament were recognized by Father Seong during the Mass on June 12. Special thanks to Mr. Kwon for his training of all the Altar Servers for the past years and to the 8 Altar Servers for their many years of service.

2016 Altar Graduates:

Michael Lim, David Kim, John Kim, Matthew Kim, James Park, Kevin Seo, Eric Yoon, and Roland Park.



Altar Serving

Servers assist the presiding priest with various details so that he may give full attention to presiding at the liturgy. The various tasks include assisting the presider with the Sacramentary, helping to set the altar table with the necessary vessels, and handling candles, incense, the processional cross and other Sacramentals.

Graduates short messages about altar experience! ☆☆☆

Altar service brought me closer to God!

I believe that altar serving set me up to go to Johns Hopkins!! 😊

In my 6 years of service, though sometimes it got busy I never once regretted becoming an altar server.

Love ❤️ You should do altar serving
Cool~☆ Such a new experience~



며칠 전 친구가 갑자기 카톡을 보냈습니다. “너희 사장님 인기 많네?” 평소엔 연락을 하지 않던 친구였으면 ‘애가 무슨 이상한 소식을 들었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서품을 받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던 친구였기에 될 소린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친구가 보낸 사진을 봤습니다. 교황님이 그려진 사탕이였습니다.

친구는 지난 주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딜 돌아다녀도, 특히 큰 성당에 갈 때마다 교황님과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저런 카톡을 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교황직에 선출된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프란치스코’라고 응답하셨고, 새 교황님을 고대하던 무수한 군중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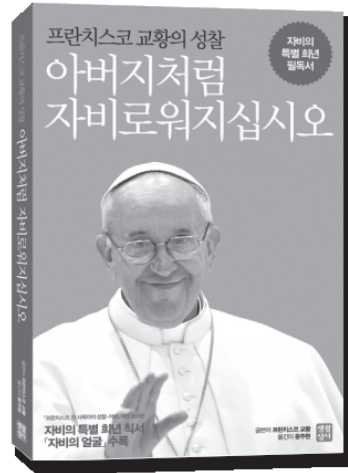
첫 모습을 드러내면서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먼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교종’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울리는 교황님이십니다.

저에게도 2014년 한국을 방문하셨던 교황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2014년 8월 16일 시복미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약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추산되는 그곳에서 교황님께서 카 퍼레이드를 하셨습니다. 그 때 교황님께서서는 주위의 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방탄우리가 없는 차, 그리고 큰 차가 아닌 소형차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아픈 사람들이나 아기가 있으면 차를 멈추고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춰 주셨습니다. 정말 ‘종들의 종’으로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교황님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황님의 모습을 바라본 신자들도 누구보다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우 더운 날씨였고, 다들 이른 새벽에 도착해 피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가 끝나고 질서를 위해 차례대로 퇴장하겠다고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묵주기도를 하자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 불평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세 가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무질서가 없었고, 쓰레기가 없었으며 갈등이 없었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익 주교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에 진정 복음적인 생각과 말씀을 넘어 무엇보다도 그분의 실제 삶의 꾸밈없는 진실성이 확연히 자리하고 있음을 모두가 감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겸손과 사랑이 사람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교황님과 관련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찰-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지십시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읽을 때에는 교황이 된 이후에 쓰신 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실린 글들은 교황이 되기 전, 곧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교로 있는 동안 하신 강론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황이 되기 전부터 이미 지금과 같은 인품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이미 겸손의 삶, 사랑의 삶을 살고 계셨기에 더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지금도 그 모습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황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결코 휴가 중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이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P189)

“여러분은 자신의 편안함에 안주하며 자신의 것에만 지나치게 몰두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주름으로 가득합니다. ... 그러니 여러분의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P194)

“우리는 얼마나 안락한 해변가에 머물고픈 유혹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적 열정을 갖고 담대하게 당신을 선포하고 당신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바치도록 부르십니다.” (P305)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상황 속에 안주하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에스컬레이터에 거꾸로 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시 쉬어가겠다고, 조금만 머물러 있겠다고 멈추는 순간 자신의 목표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끊임없이 헤엄을 치고, 걸음을 걸을 때 우리의 목표인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2015년 12월 8일-2016년 11월 20일)이 이제 여섯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비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지십시오.” 라는 책의 제목처럼 우리도 삶 안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시기 전 이미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1 효도한마당 행사

• 일시 : 6월 19일(일) 오전 11:40, 본당 친교실

2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6월 19일(일) 오전 11:40, 하상관(B-4, 5)

3 Quo Vadis(성소자 모임)

• 일시 : 6월 19일(일) 오후 1시, 하상관(B-3, 4)

4 제75차 새 예비자 모집

• 기간 : 7월 3일까지
• 신청 : 사무실
• 문의 : 유제운 (703) 628- 9314

5 꾸르실로 정기 모임

• 일시 : 6월 24일(금) 오후 8시, A-1,2,3
• 문의 : 광노덕 도미니코 (703) 608-9664

6 성령/영성 세미나

• 일시 : 6월 26일(일) 오전 11:40- 오후 12:30, A-1,2
• 주제 : 말씀 잔치- "나의 삶" - 이해인 수녀님 동영상

7 유아세례

• 일시 : 6월 26일(일) 오후 3시, 성당
• 신청 : 6월 22일까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6 성인 견진식 사진

• 성인 견진식 사진을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9 셔틀버스 추가 운행 안내(6월 19일부터)

• 셔틀버스를 주일 아침 7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추가로 운행합니다.

셔틀버스 스케줄

- ▶ NGIS (Northrop Grumann Info) 주차장에서 성당으로
 - 오전 7:20 에서 10분 간격으로 7:50 까지
 - 오전 9:20 에서 10분 간격으로 9:50 까지
- ▶ 성당에서 NGIS 주차장으로
 - 오전 11:15 에서 10분 간격으로 11:45 까지
- ▶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단체 모임과 10시 미사에 참여하는 교우들은 아침 셔틀버스를 이용하시어 10시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위해 주차 공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알링턴 교구 다문화 미사

• 일시 : 6월 25일(토) 오후 5:30
• 장소 : The cathedral of St. Thomas More 주교좌 성당 (3901 N. Cathedral Ln, Arlington, VA 22203)
• 미사 전 후에 주교좌 성당 내에 있는 다문화 센터에서 준비한 공연 관람 및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 신청 : 구역부와 단체부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복장 : 한복)
• 문의 : 최재필 제프리 (703) 589-6580

11 테니스 동호회 회원 모집

• 성당 테니스 동호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정기모임 : 매 주일 오후 4시 (Green Briar 코트)
• 문의 : 박동성 미카엘 (571) 226-7755, 원철희 토마스 (703) 203-0332



십자가라는 이름의 길

당신이 주신 십자가는
길을 걷는 이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길을 찾는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십자가라는 이름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가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27)
(임의준 신부의 스케치북)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6월 19일(일)	연중 제12주일	Father's Day-효도한마당(11:40, 친교실), Quo Vadis(성소자 모임, 12:45), 꾸리아 월례회의(11:40, 하상관 B-4,5), 주일학교 임원회의(13:00), CCD 야외미사, CLC 피정(18:00), CYO BBQ 부엌 뒷뜰 사용 11:40 미사 후
20일(월)	연중 제12주간 월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21일(화)	성 알로이시오 공자가 수도자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22일(수)	연중 제12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성경학교(20:00)
23일(목)	연중 제12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24일(금)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CLC(20:00, 친교실), 율프레야 모임(20:00, A-1,2,3), 프란치스코(20:00)
25일(토)	연중 제12주간 토요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 (9:30, 친교실)
26일(일)	연중 제13주일	요한회 (11:30), K of C(11:30, B-3,4), 성령/영성 세미나(11:30, A-1,2), 유아세례(15:00, 성당)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6월 23일 (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가톨릭 소식** :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생명 그리고 사랑** : 한국 가톨릭 의료원의 첨단 의술 탐방 시리즈 -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 **우리 시대 사람들** : 모두가 행복한 동네를 꿈꾸며 창립된 살구여성회 이야기

6월 24일 (금) 오후 10시~11시

- **성경교실** : 정인준 신부의 성경 교실

6월 교황님 기도 지향

일반 지향: 인간연대

나이든 이들, 소외된 이들, 혼자 사는 이들이 대도시 안에서도 만남과 연대의 기회를 가지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지향: 신학생들과 수련자들

신학생들과 수도 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며 그들의 파견 소명을 지혜롭게 이끌어 줄 승수를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6월 12일 (연중 제 11주일)

주일헌금	\$ 7,424.80
교무금	\$ 9,762.60
교무금(신용카드)	\$ 2,340.00
특별헌금	\$ 700.00
2차 헌금	\$ 2,994.00
합계	\$ 23,221.4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6월 19일	프린스 윌리엄
6월 26일	센터빌 1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벽참(프란치스코), 윤시훈(아우구스틴), 임현석(아비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례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이솔(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채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썸머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Susan Interior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업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 루시아 703-338-0008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Springfield TOYOTA New / Used Cars 조상준(유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틀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중미반점 (애난데일 예촌과 WELLS FARGO BANK사이)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Kitchen, Deck Sunroom 해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Naces 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703-609-101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